

심이 있는 교육, 덴마크를 배우다

한스 요르겐 한센 Hans Joergen Hansen & 안나마리 한센 Anna-Marie Hansen

덴마크의 교육이 소위 ‘뜨고 있다.’ 과도한 학습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쉽고 학습의 균형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덴마크의 ‘심이 있는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샬롬대안교육센터에서는 2016년 기독교대안교육 주체로 국제심포지엄 “기독교 대안교육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덴마크 기독교자유학교협회(FKF) 사무총장인 한스 요르겐 한센(Hans Joergen Hansen)을 초청하였다. 한국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자유학교 사무총장인 한센과 그의 아내이자 공립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사범대학 교수 안나마리 한센(Anna-Marie Hansen)의 인터뷰로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펴보았다.

인터뷰어 마병식(사단법인 샬롬대안교육센터 총무) 번역 김수홍

마병식(이하 마) 먼저 가정과 신앙 배경,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나마리 한센(이하 Anna) 저는 교사양성대학(우리나라의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스 요르겐 한센(이하 Hans) 저는 덴마크 기독교 자유학교 협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35개의 기독교자유학교가 있습니다. 최초의 자유학교는 아주 오래전 시작되었고, 나머지 대부분

은 1970년대에 생겼습니다. 기독교자유학교는 공립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년간 20여 개의 기독교자유학교가 생겼어요. 기독교자유학교협회(FKF)는 1971년에 생겼고, 2008년부터 어느덧 8년째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 한국에 오신 동기를 여쭙 봐도 될까요. 물론 초청을 받으셨습니다만(웃음).



Hans 한국 살롬대안교육센터의 마병식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두 차례 덴마크에 오셔서 기독교자유학교와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2014년에는 기독교자유학교의 컨퍼런스에도 참여하셨고요. 수차례 마병식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 방문하여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연맹은 어떻게 기독교대안학교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 공립학교 및 정부와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방법, 더불

어 기독교교육에 있어 가정, 학교,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지 등 서로의 통찰과 경험, 의견을 나누고자 방문했습니다.

마 지난 2016년 10월, 기독교대안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논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Hans 먼저 덴마크의 자유학교 및 기독교자유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학교들에 대한 제언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덴마크 자유학교



덴마크는 의무재학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한 자유를 가집니다.



의 긴 역사를 짧게나마 이해해야 합니다.

덴마크는 천 년 이상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50여 년 전인 1849년 덴마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3년 후인 1852년에는 덴마크 첫 자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855년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룬트비(Grundtvig)와 콜드(Kold)는 이런 법안이 가능하게 애쓴 그리스도인이었지요. 그들은 어떤 학교가 성경이나 루터의 저작에 기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경우 부모가 자녀들이 수업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왕과 싸우면서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았지만, 결국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학부모들은 자녀를 스스로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독교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무재학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의무는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한 자유를 가집니다. 오늘날 덴마크에는 그룬트비-콜드 자유학교, 학문을 강조하는 사립 자유학교, 기독교자유학교, 이슬람 자유학교, 천주교 자유학교,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영향 받은 학교, 소수의 독일어 사용자를 위한 학교 등 다양한 자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덴마크의 자유학교가 겪는 어려움, 예를 들면 어떻게 기독교학교의 모습을 지킬 것인지, 교사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재정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한국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들에게 제안한 것은 경쟁을 넘어서는 교육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 한국과 덴마크의 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Hans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은, 덴마크에서 대안학교와 공립학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발전 정도나 교육의 질도 유사하고, 덴마크 내 다른 종류의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공립학교는 1,300여 개, 자유학교는 540개 정도로, 전체 재학생 대비 자유학교는 15%, 공립학교는 85%정도입니다. 10년의 의무교육 기간은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유학교는 운영금의 73%를 정부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죠. 제가 본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있더라고요.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그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오전 8시에 학교가 시작되고 오후 3시에 마칩니다. 그 후에는 운동 및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죠. 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한국 학생들이 덴마크 학생들보다 월등히 똑똑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웃음). 그렇게 오랜 시간 경쟁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강조하면서 공부를 강요한다면,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을 한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한국의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na 뇌와 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뇌는 휴식과 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휴식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은 충분히 쉬고 잠을 자야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학습은 휴식과 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휴식 없이 공부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와 한국의 교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na 한국에서 몇 개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은 덴마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제한적인 반면, 덴마크는 교과서나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국 학교 수업을 충분히 참관하지 못해서 교실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네요.

Hans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계속 들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공부의 목적이 삶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사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Anna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교실에서 많은 대화를 해요. 한국에서는 교실에서의 대화가 적더라고요.

Hans 덴마크 교실에서는 누구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Anna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가르칩니다. 충분히 보진 못했지만 교사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교수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마 안타깝게도 한국 교육의 목적은 시험이지요. 그러다 보니 경쟁적인 교육문화도, 학생들의 자살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가 진정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자유학교, 애프터스쿨(After School, 한국의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졸업 후 1~2년간 다니는 예체능학교) 등과 같은 많은 대안교육을 공립학교와 같이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안학교도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지요. 한국에서 덴마크는 대안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대안교육이 가능한 가운데 왜 특별히 기독교자유학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Hans 덴마크 자유학교의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훌륭한 시민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약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기독교학교에서는 같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기독교자유학교가 점점 커지면서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도 입학하여 설교도 듣고 기독교적 교육도 받고 있고, 몇몇은 교회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마 한국 사회는 덴마크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덴마크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이 바라본 덴마크는 행복한 사회이고, 무엇이 그토록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신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 속에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나요?

Anna 행복은 중요한 이슈이고,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웃음). 그래도 다른 사회와 비교하면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제 생각엔, ‘신뢰(Trust)’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를, 정부를, 기업가들을 신뢰하는 문화적 풍토가 있어요. 어떤 협상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말한 것을 지킬 것을 신뢰해요.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평등(Equality)’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고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는 계층이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교육받았고 더 부유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인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Choose)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만족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직종이냐가 아니라 영향력이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Hans 덴마크는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루터파 교회가 정부의 공식 교회인데요, 기독교의 가치 중 일부분이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덴마크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na 제가 본 덴마크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매우 공손하고 상급자나 노인,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덴마크는 별로 공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덜 공경해요.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편하게 하려 하지요.

Hans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약 교사와 식사를 하는데 교장이 보이면 존경의 표시를 해요. 정부 인사를 만났을 때요. 아주 보기 좋고 공손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예요. 우리는 어제 저녁 한국의 한 기관 단체장과 식사를 하며 한국과 덴마크의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초청받아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셨네요. (웃음)

Hans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인데, 정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나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물론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수업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우리 기독교교육이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독교학교에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Hans 지난 주 한국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기독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인 동성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모는 이 주제를 꺼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런 주제를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이런 주제, 즉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덴마크 사회에서 성은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요.

Anna 학생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피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고, 누구나 자기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물론 그 선택의 중요성도 알아야 하고요.

Hans 기독교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구별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지,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인 곳에 살도록 교육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 사람, 인간관계, 그 외 모든 것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학교가 당면한 힘든 과제이자, 꼭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마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na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네요. 가르침은 복잡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교실에서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교실은 이미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는 것이, 또 다른 교실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요. 교실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도 좋은 교사이겠지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는 다양한 교실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Hans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주제를 가르칠 때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각 주제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을 갖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마 그래서 이 잡지의 이름이 바로 '월드뷰, 세계관'입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월드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매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메시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Hans 지난 11월, 우리는 루터가 반박문을 걸었던 비텐베르그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멜란히톤이 학교를 열어 사람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학교의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루터

가 주창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요.

Anna 그런데 비텐베르그의 컨퍼런스에 갔을 때, 28개국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몇 국가는 루터의 주창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루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살롬대안교육센터**는 공동체와 관계중심의 교육, 사랑과 회복의 교육 운동을 통해 살롬 공동체를 위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안교육을 위한 연구와 자료 지원, 대안교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육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컨설팅, 국내외 교육현장 교류 협력 네트워크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고 동역하는 기독교대안교육의 지원센터입니다.

- 홈페이지 : www.caeak.com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58-3

- 재정후원 및 기금 : 농협은행 301-0201-2986-11
예금주)살롬대안교육센터

- 문의 : 070-8235-0520

- e-mail : hacstory@hanmail.net